

1920년대 초 개성 아동지 『새별』 연구

장정희* · 서희경**

차 례

- | | |
|-----------------------------------|---------------------------|
| 1. 서론 | 4. 『새별』 수록 아동문학 작품 조명 |
| 2. 발행 현황 및 편집 체제의 특징 | 1) 주요 활동 작가의 소개 |
| 1) 『새별』의 창간과 전체 발행 현황 | 2) 고한승·마혜송 발표 작품의 서지 사항 |
| 2) 『새별』 편집체제의 특징 | 3) 발굴 윤석중 동요 『봄이 오니까』 |
| 3. 방정환과 개성 어린이문예운동사의 한 측면 | 5. 『새별』지의 아동예술사적 조명 |
| 1) 『새별』과 『어린이』의 영향 관계 | 1) ‘한어린이’의 관찰로 본 새별사 음악대회 |
| 2) <색동회>, 개성 어린이날, 그리고 방정환과 교유 관계 | 2) 새별사의 아동 예술 행사와 방정환 |
| | 6. 나오며 |

국문초록

이 논문은 1920년대 초 개성 지역에서 발행된 아동 잡지 『새별』에 대한 연구이다. 『새별』지의 존재를 학계에 발굴 소개하고 발행 사항과 편집 체제 등 그 서지적 고찰에 일차적 목적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1920년대 초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에서 『새별』지가 어떤 역할을

* 주저자, 서울대학교 포스닥연구원.

** 교신저자, 숭실대학교 문예창작학과 박사수료.

하였는지, 개성 지역의 소년문예운동과 『어린이』의 영향 관계, 방정환과의 교유 관계 등을 조명했다.

『새별』은 1923년 11월 창간호를 낸 후 1924년 10월호까지 약 1년간 10개 호 가량 발행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새별』은 ‘문예 중심 편집’으로 동요, 동화, 소설, 동화극 같은 아동문학 작품을 지면의 절반 이상을 할애해 실었으며, 창간호부터 역사 인물 이야기 란을 두는 등 어린이들에게 민족의식을 전해주고자 했다.

『새별』과 『어린이』는 표지와 편집 체제 등 유사성이 발견되고, 1924년 5월호를 ‘어린이날 기념호’로 내는 등 방정환의 어린이운동과 연대한 모습을 보여 주고 있다. 그 배경으로 본 연구는 진장섭·고한승·마해송 등 개성 출신 <색동회> 회원의 적극적 행보와 그 관련성에 주목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새별』의 주요 아동문학 작가는 ‘대화’에 우영희, ‘동요’와 ‘유년소설’에 금강생, ‘동화’에 고한승, 고한용, ‘소설’에 임영빈, ‘동화극’에 마해송, 그 외 편집 주간으로서 여러 필명으로 글을 발표했을 박홍근 등을 거론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새별』을 통해 마해송의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의 발표 시기가 기존에 알려진 ‘1923년 12월호’가 아닌 ‘1924년 1월호’임을 확인하고 바로잡았다. 윤석중의 동요 『봄이 오니까』도 처음 발굴 소개했다. 『봄이 오니까』는 일본 동요 『봄이 왔다[春が来た]』에 대한 항일의식으로 발로로 창작된 작품으로 평가되며, 그 동안 윤석중의 첫 작품으로 알려진 『신소년』 수록 『봄』과 같은 시기인 ‘1924년 5월’에 발표된 것이다.

『새별』은 약 1년 간 발행되어 비록 단명으로 종간한 잡지지만 개성 지역 아동문학사 연구의 중요한 사료이다. 『새별』은 박홍근, 우영희, 고한승, 마해송 등 개성 아동문학 작가의 작품 활동 무대가 되었으며, 이후 고한승의 『무지개』(1927), 마해송의 『해송동화집』(1934)이 출간될 수 있도록 밑거름 역할을 했다. 특히, 『새별』은 <색동회> 회원들이 집필에

적극 참여하고, 경성 『어린이』 잡지와 교류 행사를 갖는 등, 방정환의 어린이운동과 연계하여 개성 지역 어린이운동과 아동문학을 발전시키는 데 기여했다.

주제어 : 개성, 셋별, 색동회, 고한승, 마해송, 방정환

1. 서론

『셋별』은 1923년 11월 개성에서 창간된 박홍근 주간의 아동 잡지이다. 한국 아동문학사를 거론할 때 빠지지 않고 언급되는 이 잡지에는 색동회의 주요 멤버였던 고한승·마해송의 초기 작품이 실려 있는 것으로도 잘 알려져 있다. 마해송은 그의 첫 동화집 『해송동화집』(동성사, 1934)에서 동화 「어머님의 선물」,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다시 건져서」 3편의 수록 지면을 『셋별』이라고 밝히고 있다. 고한승도 그의 첫 동화 동극집 『무지개』(1927)에서 동화 「바위의 슬픔」·「분꽃 이약이」, 동화극 「집업는 나비」 3편의 수록 지면을 『셋별』이라고 밝히고 있다.

흥미로운 사실은 이 시기에 두 사람이 동화와 더불어 아동극을 함께 발표한 사실이며, 마해송은 따로 아동극 2편에 ‘송도소녀가극단을 위하여’라는 내용을 덧붙여 부기해 두고 있다. 작품의 발표 시점은 모두 1923,4년이다. 당시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아동문예운동의 한 단면을 보여준다. 『셋별』이 192,30년대 초창기 한국 아동문학과 아동예술의 의미 있는 무대였음을 말해 주고 있다. 또한, 이 시기는 방정환이 『어린이』(1923.3.)를 창간하고 <색동회>(1923.5.1.)를 창립하여 동화 개척 운동 이끌던 때와 겹친다. 고한승·마해송 두 사람은 방정환이 주간하던 『어린이』의 주요 필자이기도 했다. 이런 점에서 개성과 경성을 잇는 『셋별』과 『어린이』의 연결 지점에 대한 조명도 필요하다.

『셋별』은 개성 지역이라는 특수성과 결부하여 우리나라 초창기 소년

운동사와 아동문학사 조명에서 주목되는 아동 잡지이다.¹⁾

그러나 아쉽게도 그 동안 『새별』은 그 실물이 공개된 적이 없었다. 그에 따라 『새별』은 한국 아동문학사 서술의 서두를 차지하면서도 그 실질적인 서지 고찰이나 편집 체제, 내용에 대한 이해는 제대로 조명되기 어려웠다.

본 연구가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윤석중문고에서 확인한 『새별』지 3개 호의 존재는 ‘발견’ 그 자체로서 초창기 한국 아동문학사 연구에 새로운 화두를 던져줄 것으로 기대한다. 발굴 『새별』의 권호 사항은 2권 2호(1924.2), 2권 3호(1924.3), 2권 5호(1924.5)이다. 이 가운데 2권 5호는 ‘어린이날 기념호’로 발행되어 더욱 의미를 더한다. 새롭게 발굴된 자료 가운데, 윤석중이 투고하여 입상작으로 실린 동요 『봄이 오니까』(1924.5)가 있다. 이는 그가 『신소년』에 『봄』(1924.5)을 발표한 것과 같은 시기이다. 『새별』이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윤석중문고>에서 확인된 것은, 역시 윤석중 본인이 초기 작품을 발표한 잡지라는 이유로 생전에 소장하고 있다가 사후 <윤석중문고>가 설치될 때 함께 옮겨지게 된 때문으로 파악된다.

이번에 처음 소개하는 『새별』 3개 호는 우선 분량 면에서 이 잡지의 전체성을 규명하고 그 내용의 구체적인 세부를 조명하기에는 미흡하다. 그러나 1923,4년 개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어린이운동과 『새별』을 무대로 전개되었던 초창기 한국 아동문학사의 일각이 본 연구를 통해 가시적으로 드러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따라서 본고는 우선 『새별』지의 존재를 학계에 발굴 소개하는 데 일차적 목적을 두고 발행 사항과 편집 체제, 수록된 전반적인 작품을 소개하는 데 목적을 두고자 한다. 나아가 1920년대 초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에서 『새별』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방정환과의 교유 관계 및 『어린

1)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1860~1945년-』, 민족문화사, 1992.

이』와 영향 관계 등을 곁들여 짚어볼 것이다.

2. 발행 현황 및 편집 체제의 특징

1) 『샛별』의 창간과 전체 발행 현황

이번에 발굴된 『샛별』의 판권에 의하면, 당시 『샛별』은 편집인 박홍근(朴弘根), 발행인 미국인 안지선(安至善), 인쇄인 임한영(林漢泳) 체제로 운영되었다. 발행소는 샛별사, 인쇄소는 송경인쇄소(松京印刷所), 총판매소는 개성 지역에 두고 경성과 대구 두 곳에 발매소를 두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다. 개성 총판매소는 문화관(文化館)이고, 경성 발매소는 동양서원(東洋書院), 대구 발매소는 무영당(茂英堂). 값은 10전.

본 연구는 이번에 새로 발굴된 『샛별』 3개호와 근대 매체의 기록 사항을 비교 재구성한 결과, 이 아동 잡지가 1924년 11월에 창간호를 내고 1924년 10월호까지 약 10개 호 가량 발행했을 것으로 추정한다. 창간호의 정확한 ‘발행 일자’는 알 수 없고, ‘11월 1일자’로 발행되었을 가능성에 무게를 둔다. 이번에 확인한 제2권 제2호의 발행 일자는 ‘1924년 2월 1일’로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2권 3호와 2권 5호는 각각 ‘1924년 3월 10일’ ‘1924년 5월 10일’로 점차 발행일이 늦춰지고 있다.

동아일보 1923년 11월 21일자에는 “금집(동화) ○○○, 정포은선생(전설), ○○(전설) 가을바위(동요) 당초밭(동요) 해는 진다(동화) 순봉이와 ○기(소설) 등은 모다 어엿브고 재미잇서 어린이의 조흔 선물이 되겠더라”²⁾고 『샛별』 창간호의 내용을 간략히 소개하고 있다. 이로 보아 『샛별』은 창간호부터 동요와 동화, 소설을 위주로 한 문예 중심의 아동 잡지였음을 알 수 있다.

2) 동아일보 1923년 11월 21일자.

본 연구는 앞서 『셋별』이 통권 10호 가량 발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근대 신문 매체를 통해 확인한 바, 1924년 『셋별』 8월호와 9월호의 발생 소식이 나타나지 않는다. 1924년 『셋별』 7월호 발행 보도 후 10월호 발행이 보도되고 있다. 8,9월호까지 발행되었을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본 연구는 두 개호의 발행을 확정하기가 어려웠다. 『셋별』은 1924년 10월호를 끝으로 중단하게 된다. 따라서 이 와중에 잡지의 발행 역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으며 부정기적으로 간행되었을 가능성이 없지 않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다음은 『셋별』의 종간을 전후한 신문 매체의 보도 내용이다.

셋별社 新面目

개성의 유일한 소년잡지

명년 정월부터 다시 난다.

개성에 유일한 소년소녀잡지(少年少女雜誌) 셋별은 그간 세상의 만흔 어린이의 환영을 받으면서 또한 그들을 위하여 만흔 유익을 끼치어 왔습은 그 잡지 주간인 박홍근(朴弘根) 씨의 로력이 만헛섯다. 그러나 잡지가 차차 널리 퍼지고 짜라서 사무가 점점 복잡하여 가며 경영 방침이 이를 조차 변하지 아니하면 아니될 경우에 이르렀습으로 도저히 박씨 혼자서 일을 볼 수가 업게 되야 이제 새로히 개성 유지 량석룡(梁錫龍) 씨와 우영희(禹永熙) 씨등 수인이 협력하여 사무를 분담하게 되었스며 짜라서 견고한 재단(財團)과 새로운 편집 방침으로 활동을 개시하리라는데 마해송(馬海松) 씨도 편집을 도읍기로 되였고 장차 괄목할 만한 활약을 하기 위하여 십일, 십이량월(11, 12양월)은 림시 휴간(臨時休刊)을 하고 래년 정월호부터 새 면목으로 세상에 나타나리라더라.(개성)³⁾

『셋별』을 발행함에 있어, “잡지 주간인 박홍근(朴弘根) 씨의 로력”이 많았지만 잡지가 널리 퍼짐에 따라 “사무가 점점 복잡하여” 갔다는 것, 더 이상은 “박씨 혼자서 일을 볼 수가 업게” 되었다는 상황 설명을 하고

3) 『조선일보』 1924년 11월 17일자.

있다. 이런 내용으로 미루어 보면, 『새별』의 창간에서부터 편집까지 박홍근 주간의 개인적 의지와 노력이 상당히 작용했음을 알 수 있다.

『새별』은 1924년 10월호를 발행한 이후 경영상의 변화를 갖는다. 그것은 곧 위의 기사에서 언급되었듯이, “경영 방침”을 “협력해야 사무를 분담” “견고한 재단과 새로운 편집”으로 전환하기로 결정된 것이다. 새별사는 마해송이 “편집”에 참여하는 등 앞으로 『새별』의 “괄목할 만한 활약”을 예고하고 있다.

그러나 그 후 『새별』이 속간호를 내고 계속 잡지 발행을 이어갔는지는 정확한 파악이 힘들다.

『새별』 續刊遲延

개성(開城)에서 발행하는 소년소녀잡지 『새별』은 그동안 내용 조직을 견고히 하고 경영 방침을 일신하게 하여 새로운 면목을 띄우고 세상에 나타나리라 함은 이미 보도하였거니와 그 후 그 사에서는 일일 일월 일일에 속간호 『續刊號』를 발행하고자 동인 일동이 노력중이더니 인쇄 기타의 신경영 준비상 아즉도 정돈되지 못한 곳이 잇서 예정보다 늦게 십오일 경에나 발행하게 된다고(개성)⁴⁾

『새별』의 속간호 발행 소식은 더 이상 신문 매체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개인 경영에서 협력 체제로 운영 방식이 변화되면서 이 잡지의 창간 주역이었던 ‘박홍근’이 계속 잡지 편집을 주관했는지도 미지수이다. 박홍근은 1927년 어린이날 기념 행사에 동화구연을 하였으며(1927.5.1.),⁵⁾ <개성소년동맹 창립대회>(1927.8.20.) 때 연사로 참여했다.⁶⁾ 개성 지역 어린이문화운동사에서 박홍근은 그 지도자로서 위치를 갖고 활동했다. 살펴보면, 박홍근은 1927년 5월 무렵 ‘동광사’ 사우(社友)로도 활동한 이력이 있다.⁷⁾

4) 1925년 1월 8일자 『새별 續刊號. 來十五日로 發行遲延』

5) 『開城兒童日 六日에 舉行 축하식과 기형렬로』, 매일신보 1927년 5월 9일자.

6) 『개성소년동맹 창립대회』, 중의일보 1927년 8월 24일자.

이후 박홍근의 활동은 조선중앙일보 1936년 3월 4일자 기사로 짐작해 볼 수 있다. 『금의로 환향을 한 禹崔朴孫 四氏歡迎』⁸⁾ 기사와 함께 박홍근이 “과거 10여 성상” 미국에서 고향한 사실을 담고 있다.

『새별』 창간과 박홍근 주간, 새별사를 후원한 개성의 유지들, 개성소년회 운동과 이를 다시 변화시킨 개성소년연맹 등, 오늘날 북한 지역에 남아 있는 한국 초창기 소년운동과 아동문예운동의 재조명은 향후의 남은 과제이다.

2) 『새별』 편집체제의 특징

1923년 11월 창간된 개성의 아동지 『새별』은 1919년 3.1 독립운동 이후, 진주소년회 및 천도교소년회 등 식민 치하 조선 각지에서 일어나기 시작한 소년운동의 영향 속에서 출현한 개성 지역 어린이 운동과 아동문예운동의 결실로 평가할 수 있다.

이와 같은 테두리에서 『새별』은 우리나라 초창기 아동문학 작품 발표의 무대가 됨은 물론, 어린이운동과 아동예술이 삼위가 되어 어우러진 편집 정경을 보여 주고 있다.

첫째, 가장 먼저 꼽을 수 있는 면모는 ‘문예 중심의 편집’과 ‘장르 의식의 형성’이다. 동요, 동화, 소설, 동화극 위주의 아동문학 작품이 편집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음이 주목된다. 서정 양식인 동요보다 서사 양식인 동화와 소설의 비중이 높게 나타나는 것도 특징적이다. 『새별』이 아동문

7) 『동광』 13호(1927.5.1.)에 “東光社友 芳名”의 명단 중에 “(五圓) 四月 二十五日 까지의 分(尊稱은 뭉함)” 아래 개성 지역 “박홍근” 인쇄되어 있다.

8) 『금의로 환향을 한 禹崔朴孫 四氏歡迎』, 조선중앙일보 1936년 3월 4일자. “일찍이 개성을 떠나 멀리 북미합중국(北米合衆國)에 가서 악전고투로 과거 10여 성상에 형설의 공을 닦고 금의귀향한 우상용(禹相用), 최중순(崔重淳), 박홍근(朴弘根), 손금성(孫金○) 四氏의 환영회는 29이 오후 6시 반부터 부내 천일관(天一館)에서 자기지우 유지 ○○관계자 등 30여 명의 참석 하에 성대하게 행하고 그동안의 흥금을 피력하며 ○○○이 있는 후 ○아홉 시에 화기에애리에 폐회하였다 한다.”

학의 새로운 무대로 평가되는 것은 연령별 다양한 문학과 장르적 실험을 시도하고 있는 까닭이다. 주요 장르 명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요: 동요

동화: 동화, 재래동화, 신동화, 최신동화, 장편동화

소설: 유년소설, 소녀소설

동화극: 동화극

담화: 역사이야기, 대화, 일화, 소화, 기문

‘동요’와 ‘동화극’은 단일 용어로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반면, 동화와 소설은 연령별, 성별, 길이 여부에 따라 ‘유년소설’ ‘소녀소설’ ‘장편동화’ 등 다양한 갈래로 분화되고 있다. 크게 보아 『새별』은 ‘동요, 동화, 소설, 동화극’의 4대 장르의 틀을 갖추고 작품을 편집하고 있다. 특히 ‘장편소설’ ‘유년소설’ ‘소녀소설’ 등과 같은 장르의 출현은 방정환의 『어린이』보다 앞서 있다는 점에서 『새별』의 상당한 문학 양식적 실험의식을 엿볼 수 있다.

둘째, 창간호부터 ‘정포은 전설’ 등 매호 ‘역사 이야기’ 란을 통해 조선의 역사와 인물, 민족의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 주고자 했다. 현재 발굴된 3개호 가운데, 『충무공 순신』(2권 2호, 1924.2.), 『강감찬』(2권 3호, 1924.3.)이 실린 것을 볼 수 있다. 또, 2권 3호에 실린 『강감찬』이라는 글에 보면, “여러 동모들이여 새스별 데1권 2호와 데2권 데1호에서 서희란이가 글단 군사를 말로 물니친 일을 기억하시지요.”(21면)라고 한 대목이 있다.

셋째, 매호 독자문단을 통한 소년 문사의 활약을 독려하고 담화실 코너를 두면서 독자와의 소통을 꾀했다. 『새별』은 매호 소년 독자들이 참여할 수 있는 문예란을 두고 개성 지역 소년 문예운동을 독려해 나갔다. 투고한 독자들은 개성 지역이 주를 이루지만 ‘경성’ ‘평창’ ‘울산’ 등의 독

자도 눈에 띈다.

3. 방정환과 개성 어린이문예운동사의 한 측면

1) 『새별』과 『어린이』의 영향 관계

특히, 주목되는 점은 『어린이』와의 영향 관계이다. 동요·동화·동화극의 장르 의식, 역사이야기 란의 설치, 독자문단, 담화실, 현상문제 등 지면 구성 방식에서 나타나는 두 문예지의 유사성은 어떻게 형성된 것일까? 두 잡지를 아우르며 글을 발표했던 <색동회> 회원 간의 인연, 방정환과의 상호 교유 관계를 좀 더 밀착해 볼 필요가 있다.

첫째, 닮은꼴 같은 『새별』과 『어린이』, 두 잡지의 표지가 보여주는 유사성이다. 제호의 위치, 표지 상단에 ‘소년소녀잡지’라는 문구를 넣어 인쇄한 점, 사각 형태 사진을 크게 내세운 점 등이 인상적이다.



왼쪽 『새별』 2권 2호는 오른쪽 『어린이』 2권 1호보다 1달 뒤에 나온 것이다. 이미 『새별』보다 8개월 앞서 1923년 3월에 창간된 『어린이』는

1924년 접어들자 신년호에 특별 대부록 <최신유희 호랑이 잡기>를 삽입해 독자들의 큰 인기를 끌게 된다.⁹⁾ 이와 같은 『어린이』 잡지가 개성 소년들과 『셋별』에도 전해지며 어린이 잡지계의 모방 모델이 되었으리라는 짐작을 할 수 있다.

『어린이』 1권 9호(1923.10.)에는 ‘지방소년회 소식’으로 “개성서 『소년』 발행”¹⁰⁾이라는 제목 아래 개성소년회에서 ‘소년’ 잡지를 내기 위해 준비한다는 소식을 담고 있다. 『소년』이 ‘개성소년회’에서 내는 잡지라고 소개하였으니, 셋별사에서 내는 『셋별』과는 다른 잡지라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1923년 10월을 기해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두 종류의 어린이 문예 잡지가 함께 탄생 준비를 하고 있었다는 말이 된다. 이는 곧 1923년 전후 소년운동, 어린이문예운동에 대한 개성 지역의 열의가 상당히 높았다는 것을 반증한다.

2) <색동회>, 개성 어린이날, 그리고 방정환과 교유 관계

한편, 『셋별』의 출현은 단순한 잡지 발행을 넘어 당시 개성 지역의 근대 신문예운동사의 한 측면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개성은 전통적으로 ‘개성 인삼’ 재배로 상업 자본이 발달한 도시로, 1920년 4월에 이미 문예 잡지를 표방한 『여광』¹¹⁾이 발행되는 등, 유학생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9) “여러분 썩서도 신년호는 모다 칭찬하시지만 참말 굉장하엿습니다. 다른 세보다도 굉장하게 더 만히 박혔건만은 그래도 금시에 번쩍 날아가듯 팔려버려서 나중에 주문하시는 이에게는 한 권도 드리지 못했습니다.”(『어린이』 2권 2호, 1924.2.40면)

10) “개성소년회에서는 이번에 『소년』이란 잡지를 발행하기로 되었다는대 작문 동화 동요 등을 만히 보내주기 바란다 합니다”(『어린이』 1권 9호, 1923.10. 18면.)

11) 유입하, 『한국근대문학 해제집 IV』(국립중앙도서관, 2018) 참조

『여광』은 1920년 4월 5일 개성에서 발행된 잡지다. 표지에 잡지의 영문명을 ‘The Light of Korea’라고 붙였고 바로 밑에 ‘문예잡지’임을 기재하였다. 표지에 ‘대정 9년(1920) 4월 5일 발행’이라고 기재했고 판권에는 3월 31일 인쇄했다고 표기해 놓았다. ‘연 6회 발간’, ‘격월 1회 1일 발행’을 내세웠으나, 그해 6월에 나온 제2호까지만 남아 있다.

사회운동이 활발하게 일어난 지역이다. 마해송·진장섭·고한승 등은 『여광』의 필진이었으며, 이 가운데 진장섭은 보성전문학교 시절 방정환이 편집 실무를 맡던 『신청년』의 필진이기도 했다. 이들 개성 출신 작가들과 방정환의 인연은 다시 동경 유학생을 중심으로 창립한 <색동회> 회원으로 확대 결속된다. 이러한 인적 관계와 교류의 밑그림에서 개성 지역 아동지 『셋별』과 방정환의 『어린이』 사이에서 나타나는 소년운동의 연대성, 잡지 편집 체제의 유사성, 또 두 잡지를 무대로 활동했던 공통된 필진의 양상이 자연스럽게 이해가 된다.

이 같은 교유 관계를 연결 짓는 중요한 인물은 바로 진장섭이다. 진장섭은 『소파와 나』라는 그의 수필에서, 보성고보에 다니던 열여섯 살 때 이미 당시 스무 살이었던 방정환과 처음 인연이 되었다고 쓰고, 1919년 3.1독립운동 때 두 사람은 함께 만세운동을 했다고 한다. 그 뒤 진장섭은 다니던 보성고보에 복학을 하지 못하고 1920년 9월 동경 청산학원으로 유학을 간다. 그 학교에서 진장섭은 1922년 졸업을 하고 그 해 4월 동경 고등사범에 입학하게 된다. 이곳에서 진장섭은 훗날 <색동회> 창립 회원으로 참여하는 조재호를 만난다.

진장섭이 쓴 다음의 글을 보자.

그 해(1919년) 8월 29일에 나는 개성을 떠나 일본 山口로 가서 그곳 鴻城中學에 입학했다. ... 내가 일본으로 떠난 뒤에 내 고향 개성에서는 몇 문학동지의 손으로 동인 잡지 『麗光』이 발간되었다. 동지 2호에 나는 『山口에서 松都까지』라는 기행문을 실었다. ... 그 글의 말미에 보면 “前略... 남대문역에 내리니 방정환·고한승·마해송 제군이 반갑게 맞아 주었다”는 기록이 남은 것으로 보아 그 당시 나와 그들 사이에는 대단히 빈번한 연락이 있었음을 말해 주고 있다. ...

小波와 나는 가끔 편지왕래가 있을 뿐, 오래 동안 만나지 못했다. 그러던 차에 1922년 10월 중순이었다. 어느 일요일 오전에 東京 大塚上町에 있는 내 하숙에 소파가 돌연히 나타났다. 무척 반가웠다. ... 각설하고 그 뒤 우리는 동지 규합에 착수하였고, 드디어 그 해 3월 16일 소파

집에서 제1회의 준비회합을 가진 비는 우리 회보에 기록된 바이다.¹²⁾

진장섭이 <색동회> 동인 조재호를 만난 시점은 1922년 무렵으로 되어 있지만, 방정환과 개성 출신 진장섭·고한승·마해송의 인연은 그 훨씬 전인 1919년부터 1920년부터 형성되어 이어지기 시작했다. 이로 볼 때 이번에 확인된 『새별』 3개호에서는 진장섭의 글이 발견되지 않았지만, 그 나머지 권호에 그의 글이 실렸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식민지 치하 1919년 3.1운동을 목도했던 청년 지식인으로서 이들은 어린이를 잘 기르자는 문화 건설에 공감하며 소년운동과 어린이날, 어린이를 위한 각종 문예 잡지 발간에 의지를 갖고 함께 움직여 나갔다.

『새별』과 『어린이』가 공통적으로 어린이날이 있는 그 달치를 ‘어린이날 기념호’로 구성했다는 점도 이러한 운동이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새별』은 ‘어린이날 기념호’에서 당시 개성소년회 주최의 ‘개성의 어린이날 기념 기행렬’ 소식을 화보로 실고 있다. 『어린이』와 같은 형태로 잡지를 ‘어린이날 기념호’로 냈다. 이 기념호로 나온 『새별』에는 경성의 <명진소년회>, 협우(協友) 소년회 내 월간 잡지 <소년지광사>의 축하 광고도 실려 있다. 개성과 경성이 밀접하게 연계되어 움직인 초창기의 의욕적 어린이운동의 면모를 잘 보여주고 있다.

『새별』 2권 5호(1924.5.)에는 ‘어린이날 기념’ 문구를 표시한 광고가 7면¹³⁾이나 된다. 이는 곧 어린이날을 기념하는 개성 유지들의 적극적 지지를 표현하는 것이다. 잡지의 표지 뒷면에 실린 ‘개성의 어린이날 기념 기행렬’ 사진 설명에는 “중앙예배당 압해 모힌 수천의 소년소녀”라고 되어 있다. 시대일보 1925년 6월 27일자에는 개성소년회 창립 3주년 소식이 소개되고 있다.¹⁴⁾ 이러한 보도로 미루어 보면, 개성소년회의 창립은

12) 진장섭, 『소파와 나』, 『색동회 어린이운동사』, 색동회, 1975. 34~35.

13) 광고를 낸 곳은 도서문구 문화관, 보춘당약국, 고려인삼연구소, 개성사진관, 송경인쇄소, 반도시계점, 혁신양화점, 내산사진관 등이다.

14) 시대일보 1925년 6월 27일자. 『개성소년회 3주년 기념』

‘1922년 6월’ 무렵이며, 이 시기는 바로 천도교소년회가 창립 1주년을 맞아 5월 1일 ‘어린이의 날’을 선포하고 경성 시내를 중심으로 선전지를 배포하며 알린 바로 다음 달이다. 이듬해 1923년 전 조선에 걸친 제1회 어린이날을 맞을 때 개성에서는 <소년의 금일(정춘수)>, <소년회 선전에 대해(김종필)>¹⁵⁾의 선전 강연이 있었다.

한편, 『새별』은 다음 해 1924년 제2회 어린이날을 맞이하면서 어린이날 선전지 배포 및 소년가극음악, 한석원·마해송의 동화 등을 준비하기도 했다.¹⁶⁾ 이처럼 개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1920년대 어린이운동과 개성소년회의 활동은, 진장섭·고한승·마해송의 <색동회>와 더불어 방정환의 어린이운동과 함께 맞물려 움직여 나간 교유 양상을 볼 수 있다.

4. 『새별』 수록 아동문학 작품 조명

전술한 바와 같이 1920년대 초 개성 지역 아동 잡지 『새별』은 1923년 11월부터 1924년 10월호까지 약 10개호가 발행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 가운데 이 논문이 연구 대상으로 다루고 있는 것은 3개 호 정도이다. 이 장에서는 그 개괄적인 작가의 현황, 『새별』을 무대로 활동했던 고한승·마해송, 그리고 이번에 새로 확인된 윤석중의 첫 동요작에 대해서 살펴본다.

1) 주요 활동 작가의 소개

불과 3개호로 남아 있는 『새별』이라는 존재는 1920년대 초 우리나라 개성 지역에서 전개된 아동문학이 활발하게 성장해 갔음을 잘 보여 주

15) 동아일보 1923년 5월 4일자. 「개성소년회의 선전강연: 소년의 금일(정춘수), 소년회 선전에 대해(김종필)」

16) 시대일보 1924년 4월 26일자. 「개성, 소년기념선전」

고 있다.

『셋별』을 무대로 활동한 주요 작가로는 ‘대화’에 우영희, 동요와 유년 소설에 금강생, 동화에 고한승, 고한용, 소설에 임영빈, 동화극에 마해송 등이 있다. 그러나 익명 내지 필명의 글도 절반 가량이다. ‘小石’ ‘외구름’ ‘쓴배’ ‘白曙생’ ‘구름’ ‘KY’ ‘P생’ ‘K생’ 등 다양하다. 마찬가지로 초창기 아동 잡지였던 만큼 원고 부족으로 잡지 발행인과 소수 편집진이 필자가 되어 잡지 지면을 채우느라 매달렸음이 역력하다. 일부 필명 ‘백서생’은 고한승, ‘P생’은 박홍근 등으로 짐작되기도 하지만 단정지을 수는 없다. 『셋별』을 무대로 활약한 작가의 면모는 후속 발굴이 이루어질 수 있을 때 보다 구체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것이다.

장르적으로 『셋별』이 먼저 1924년 3월호부터 5월호까지 ‘장편동화(長編童話)’를 시도한 점도 평가된다. 연재된 작품은 『소돌이와 대돌이』이다. 장편을 ‘長篇’이 아닌 ‘長編’으로 표기했다. 이 작품은 외국 동화의 번안으로 추정된다. ‘소석(小石)’이라는 필명을 사용한 인물도 확인되어야 한다. 그 동안 우리나라 최초로 씌어진 장편 아동문학은 『어린이』에 연재된 방정환의 소년탐정소설 『동생을 차즈려』(1925.1.~1925.10.)와 『칠칠단의 비밀』(1926.4.~1927.12.)로 주로 언급되어 왔다.¹⁷⁾ 『소돌이와 대돌이』는 분량 면에서는 3회 연재로 그치고 있지만, ‘장편’이라는 장르 용어를 선택하여 아동문학 서사의 장편화를 이 시기에 이미 시도했다는 점이 평가된다.

2) 고한승·마해송 발표 작품의 서지 사항

고한승이 발표한 ‘신동화’ 『바위의 슬픔』 원작이 처음으로 확인되었다. 고한승은 훗날 그의 ‘동화동극집’인 『무지개』(1927.3.)에 『바위의 슬픔』을 수록하면서, ‘1924년 5월 셋별 소재’라고 밝혔다. 역시 그가 밝힌 그대로이다. 이밖에 고한승은 『무지개』에 또 다른 동화 여러 편에 대해서도

17) 장정희, 『방정환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3.

‘셋별 소재’라고 밝혀 놓고 있다.

『무지개』에서 고한승이 밝히고 있는 작품 수록 지면은 다음과 같다.

백일홍 이약이(1923년 11월·12월 『어린이』 소재)

나비와 장사꽃¹⁸⁾(1924·3·31 시대일보 소재)

바위의 슬픔(1924년 5월 『셋별』 소재)

국기소녀(1924년 2월 『신문예』 소재)

노래부르는 꽃(1924년 9월·10월 『어린이』 소재)

분꽃 이약이(1924년 10월·11월 『셋별』 소재)

크리스마스 선물¹⁹⁾

동화극 해와 달(1924년 3월 『신문예』 소재)

집업는 나비(1924년 6월 『셋별』 소재)

우선 『무지개』에 나타나 있는 정도만 보더라도 고한승은 동화 『바위의 슬픔』(1924.5.), 『분꽃 이약이』(1924.10·11.), 동화극 『집업는 나비』(1924.6.) 등을 『셋별』에 발표한 것으로 되어 있다. 이 가운데 그 발표 원문이 확인된 것은 1924년 ‘어린이날 기념호’에 실린 『바위의 슬픔』 한 편이다. 『바위의 슬픔』은 ‘신동화’로 표시되어 있는 것으로 봐 고한승이 직접 쓴 ‘창작’ 동화로 파악된다. 창작일은 ‘1924.4.15.작’으로 되어 있다.

어떤 산 아래 큰 바위가 하나 있는데, 가슴 속에는 귀한 금강석이 한 개 박혀 있다. 바위는 자기의 금강석을 꺼내어 유익하게 쓰게 하고 싶지만 한 모퉁이가 부스러져서 울퉁불퉁 고약한 모습이 되었다. 어느 날 찌꼬리 한 마리가 찾아와 바위의 친구가 되었다. 바위의 소원을 들은 찌꼬리는 사냥꾼이 오거나말거나 홀로 노래부르며 있었다. 사냥꾼이 쓴 총알은 찌꼬리의 가슴을 꿰고 들어가 바위를 깨뜨렸다. 비로소 사냥꾼에 의

18) 목차에는 ‘장사꽃’이라고 되어 있으나, 본문에는 ‘가락지꽃’으로 되어 있다.

19) 작품의 말미에 ‘24.6.18일작’이라고 창작일은 밝히고 있으나 수록 지면을 따로 표시하지 않았다.

해 바위는 쪼개어지고 금강석은 세상에 나타나게 되었다.

가슴에 귀한 보석을 갖고 있는 바위가 자기 스스로 그것을 꺼낼 수 없는 슬픔을 다루고 있다. 바위가 간직한 보석은 사냥꾼의 총알에 맞아 비로소 세상에 나타나게 되지만, 자기를 지켜 주던 아름다운 피꼬리는 비장한 죽음을 맞이하고 만다. 결국 그 보석의 혜택이 피꼬리를 죽인 사냥꾼의 총알에 의한 결과라는 점에서 바위의 ‘슬픔’은 비극성을 드러낸다.

마해송의 동화극 『다시 건너서』의 발표 원작도 이번에 처음 확인이 되었다. 마해송은 1934년 첫 동화집 『해송동화집』(동경: 동성사)을 출간하면서, 12편의 동화와 아동극 작품을 수록했다. 이 가운데 『홍길동』 한 편은 일부 판본에서 누락된 것도 발견되었다.²⁰⁾ 이 가운데 마해송이 『셋별』 수록 작품이라고 밝힌 것은 동화 『어머님의 선물』,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다시 건너서』²¹⁾ 3편이다. 『다시 건너서』의 경우, 내용 변화는 없다. 다만 마해송이 『해송동화집』을 펴낼 때 한자 어휘를 한글로 순화시켜 고친 것이 눈에 띈다. 가령, 지문으로 표현된 “禽蟲은 쌍통쌍통 썩고 銀蛤은 몸을 질질 쓸며 나간다”(셋별)를 “金벌레는 쌍충쌍충 썩고 銀조개는 몸을 질질 쓰으면서 나간다.”(해송동화집)로 표현한 것이 대표적이다. 그리고 『해송동화집』 수록본에는 두 편의 아동극 말미에, 모두 ‘송도소녀가극단을 위하여’라는 설명을 덧붙여 놓았지만, 이번에 확인한 『셋별』 수록본에는 그러한 내용이 없다.

마해송의 『해송동화집』에 수록된 『바위나리와 애기별』에 대한 검토도 아울러 필요하다. 이 동화는 ‘한국 최초의 본격적 창작동화’²²⁾로 평가받

20) 엄희경, 『『해송동화집』의 이본과 누락된 『홍길동』의 의미』, 『동북아문화연구』 38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3. 참조할 것.

21) 동화 『어머님의 선물』,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송도소녀가극단을 위하여, 1923년·12·새사별), 아동극 『다시 건너서』(송도소녀가극단을 위하여, 1924년·5·새사별).

22)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132~133면.
“1923년에는 박흥근 주간의 『셋별』지에 최초의 창작동화 『바위나리와 애기별』·『어머님의 선물』·『복남이와 네 동무』 등을 발표하는 한편, <송도소녀가극단>을

는 데 반해, 그 발표 지면은 『셋별』이 아닌 『어린이』라는 연표에 대한 문제제기²³⁾가 이루어진 작품이다. 『해송동화집』에서 마해송이 밝히고 있는 작품 소재 지면은 ‘1926년 1월 어린이’로 되어 있다. 이번에 본 연구가 검토한 『셋별』에는 1923년 발행본 2개호가 포함되지 않아서 그 정확한 사실을 밝힐 수가 없다. 그러나 역시 당시 신문에서 보도되는 매체 기록을 조사해 보아도, 『셋별』에 『바위나리와 아기별』이 실려 있다는 보도 내용은 나타나지 않고 있다. 현재까지의 조사 결과로 볼 때, 이 작품이 『셋별』에 발표되었을 가능성은 희박한 듯하다.

그리고 마해송은 그의 해송동화집에서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의 발표 시점을 ‘셋별 1923년 12월호’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 작품은 ‘셋별 1924년 1월호’에 수록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왜냐하면 『셋별』 1924년 신년호를 소개하는 보도에서 이 작품명이 거론되고 있기 때문이다.

“새해 아침, 넬손경의 어렸을 때, 壽童의 죽음, 나무에 오른 아해, 이상한 나그네, 문명한 세상, 정직한 헛티, 서장군, 우리비도새비, 福男이와 네 동무, 어름판으로 등 기타 다수한 동요와 동화”(동아일보 1924.1.7.)

“새해 아침”이라는 권두의 글이 실렸다는 소개로 보았을 때 더욱 신년호라는 것이 확실해진다.

도와 지방 순회를 하면서 자작동화를 구연했다.” “마해송의 선구적 공적은 무엇보다 그가 이 나라 최초의 본격적 창작 동화를 썼다는 데에 있다. 1923년 동화 『어머님의 선물』과 그의 처녀작이자 대표작이라 불리는 『바위나리와 아기별』이 『셋별』지를 통해 발표됨으로써 한국아동문학사상 최초의 본격적 창작 동화는 출현한 것이다. 물론 그 이전에도 동화라는 이름으로 발표되는 작품들이 더러 있었지만, 그것은 구전되어 오던 전래동화를 그대로 기술한 것이거나 외국 작품을 번안한 것에 불과했고, 더구나 그것도 문학적 양식을 빌어서 정리된 것은 아니었다.”

23) 원종찬, 『아동문학사의 잘못된 연표— 바위나리와 아기별 의 서지사항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6; 『한국 아동문학의 쟁점』, 창비, 2010, 99면.

3) 발굴 윤석중 동요 『봄이 오니까』

윤석중(1911~2003)은 13세 되던 1924년 5월호 『신소년』에 동요 『봄』, 1925년 『어린이』지에 동요 『웃둑이(오뚝이)』가 입선되면서 본격적으로 작품 활동을 시작했다. 관련하여, 『새별』 2권 5호(1924.5.)에 윤석중의 초기 동요 『봄이 오니까』가 수록되었음이 확인되었다. 『새별』 2권 5호 <독자문단>에 소개된 ‘동요(입상)’ 작품이다. 입상 동요 5편 가운데 4편이 모두 ‘보통학교’ 개성 소년인 반면, 윤석중은 경성 소년이다. 윤석중은 『어린이』·『신소년』 등 폭넓게 아동 잡지를 구독해서 읽었던 소년 문사였다. 그가 개성에서 발행되는 『새별』까지 구해 읽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윤석중의 첫 동요 『신소년』 수록 『봄』과 『새별』 수록 『봄이 오니까』는 일종의 자매 작품이다. 어느 작품이 먼저이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윤석중이 그의 첫 데뷔 작품을 ‘봄’이라는 주제에 집중했다는 점이다.

1924년 당시 윤석중에게 ‘봄’의 의미는 각별하다. 윤석중은 1921년 열살에 교동보통학교에 입학한 뒤, 일본 노래 『봄이 왔다[春が来た]』를 배우면서 왜 일본어로 된 봄의 노래를 부르는가에 대한 의문을 가졌다. 그래서 그 스스로 우리말로 된 봄 동요를 지었다고 여러 자리에서 회고한 바 있다. 그런 점에서 『새별』에 발표된 『봄이 오니까』는 일본 동요 『봄이 왔다[春が来た]』에 대응되는 동요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다.

‘봄’을 테마로 한 윤석중의 『새별』·『신소년』 동요를 비교해 본다.

봄이 오니까

경성부 교동공립보통학교 尹石重

1. 짜싣하고 살기도흔 봄이오니까
두더귀는 들먹들먹 굴을 파오며
나뭇가지 푸룻푸룻 눈을 트도다.
2. 짜싣하고 놀기도흔 봄이오니까

피소리네 피솔피솔 노래부르며
나비들은 덩실덩실 춤을추도다.

- 셋별, 2권 5호, 1924.5.

봄

경성교동공립보통학교 尹石重 14세

1. 싹뚫봄이오니
 울긋불긋꽃봉오리
 파듯과듯풀잎싸귀
2. 싹뚫봄이오니
 여기저기새소리
 이곳저곳나비춤

- 신소년, 2권 5호, 1924.5.

제시된 바와 같이 윤석중의 「봄이 오니까」와 「봄」은 연작에 가깝다. 두 동요가 표현하는 것은 봄이 되어 새와 나비가 활동하고, 풀잎사귀가 생기 있게 소생하는 이미지이다. 『셋별』의 「봄이 오니까」는 3음보의 서술체로 구성되었다. 『신소년』의 「봄」은 7음절 3행을 1연으로 구성하며 각 연을 체언 종지로 산뜻하게 마무리한다. 「봄」에는 ‘울긋불긋 봉오리’ 이미지가 부가된 반면, 「봄이 오니까」에는 ‘두더지와 피꼬리의 생기나는 행동과 목청’이 묘사되고 있다.

두 작품은 모두 독자문단의 ‘입상작’이다. 여기서 자연스럽게 드는 호기심은 윤석중이 동일 작품을 두 잡지에 투고했는가, 윤석중이 본인의 원작과 개작본을 각기 다른 두 잡지에 투고했는가 하는 점이다. 결국 윤석중이 당시 일본 동요 「봄이 왔다[春が来た]」에 대응할 조선의 ‘봄’ 노래 창작을 다양하게 시도했음을 보여 준다.

윤석중의 초기 동요 「봄이 오니까」는 ‘조선의 봄’을 기획한 그의 초기 항일 문학의식과 그 창작적 면모를 확인시켜 주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5. 『새별』지의 아동예술사적 조명

『새별』을 주목해야 하는 또 하나의 측면은 1920년대 초 개성 지역을 중심으로 성장한 우리나라 아동예술의 면모이다. 물론, 이 같은 측면은 조명된 바가 있지만, 이번에 새로 발굴된 『새별』에는 어린 소년소녀들을 위한 예술행사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어린이 관점으로 서술한 글이 실려 있다. 즉, 당시 아동예술을 바라보고 체험하며 받아들인 어린이의 관점을 재인식할 필요가 있다.

『새별』은 잡지 창간과 함께 ‘새별동무대회’를 열기 시작하여, 각종 ‘동화회’, ‘음악대회’, ‘강연’, ‘가극’ 등 순회 공연을 이어나갔다. 『새별』은 잡지를 매개로 하여 움직인 우리나라 초창기 아동 예술의 한 현장이기도 했던 것이다.²⁴⁾

먼저, 당시 아동 예술 행사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어린이의 시각으로 묘사된 풍경을 엿보기로 하자.

24) 당시 새별사의 아동 예술 행사를 찾아보면 다음과 같다.

조선일보 1923.11.9./ 開城새별社童話會 去三日 高麗女子館에서 韓錫源 馬海松 兩先生の 童話로 空前 한 大盛況

每日申報, 1923.11.12./ <새별동무대회>

동아일보 1924.1.3./ 開城 새별社主催 少年少女音樂會

시대일보 1924.4.26./ 개성, 소년기념선전

동아일보 1924.5.29./ 새별社 童話會

시대일보 1924.6.17./ 한포(汗浦), 가극강연 성회(盛會), 새별사의 순회반, 소년문 제강연, 소년회 조직

동아일보 1924.6.17./ 새별社의 童話, 歌劇盛況, 소년문예 강연회에서 마해송 고 한승氏의 강연이 잇스후 汗浦少年會도 組織(開城)

동아일보 1924.8.24./ 새별社 活動, 가극 강연, 馬海松씨는 인천에

매일신보 1924.8.23./ 찬란한 새별 郡, 개성소녀가극대회, 어린이의 천진한 예술, 만장 청중은 도취하였다.

1) ‘한어린이’의 관찰로 본 셋별사 음악대회

『셋별』 2권 2호(1924.2.)에는 ‘한어린이’라는 필명의 글 『음악대회를 구경하고』가 실려 있다. 화자인 ‘어린이’는 당시 셋별사 주최 음악대회 풍경을 재미있게 그린다.

“새스별의 예고를 보고 벌써 언제부터 기다리든 우리 어엿분 동무들의 음악대회가 하마트면 노칠 변한 지난셋달 금요일에도 저녁에야 열렸섯습니다. 그날은 오후 두시부터 저녁밥을 재촉하다가 어른들께 꾸중을 실컷 듯고 하마트면 새아닌 콩마당질이 날 변한 위험을 격근 뒤에 다섯시에 된밥을 뿌리만 조금 싸고 고려녀자관의 맨꼭대기층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섯습니다.”

“어서 자라서 돈 만히 벌어 가지고 온 장 안에 잇는 작난감이란 작난감을 다 사 가지고 놀고 십흔 것도 큰 소원이지만은 원수로 키가 적어서 취군 구경이나 운동 구경을 잘 못할 새에는 참 괴가 맵습니다. 왜 처음부터 어른으로 생겨나지 못하였나 하고 혼자 골을 내인 적이 한번 두번이 아니였섯습니다. 그러나 그날 저녁에는 나는 어른될 생각이 조금도 업섯습니다. 만일 내가 내 원대로 어른이 되었더면 그 날 저녁에는 도로 어린이 되기를 울면서 빌어쓸 뻔하였스니다”

“전에 본 적이 업는 조구만 유성기에다가 소래판에도 소년판이 잇든지 적은 내 손바닥보다더 더 적어보이는 소래판이 올려 노이더니만 그 꼴과는 다르게 소래가 엇지 그리 크고 쏘 유쾌하겠지요.”

“차레차레로 뒤에 뒤를 디여서 나오는 무슨 독창이니 병창이니 동화극이니 쏘 무슨 악대의 합주니 독주니 소주니 탁주니 하고 작가 나오는 데 모두가 우리 소년소녀들의 자랑거리였스며 어늬 것이 방안에 가득찬 구경꾼들의 취한 듯한 박수와 갈채를 맞지 안는 것이 업섯습니다.”

“우리들처럼 어리지도 안으신 고 선생님이 그 육중하신 몸으로 무대에 올라오셔서 크고도 거시신 어른의 목소래로나마 고흔 百日紅 이야기

를 재미있게 하여 주셨습니다그려.”

음악대회를 가기 위해 오후 2시부터 서두르느라 부모님에게 혼이 난 아이의 설레는 감정부터, 음악대회에서 독창, 병창, 동화극, 합주 등을 자랑스럽게 감상하는 장면이 자연스럽게 이어진다. ‘한어린이’는 마지막으로 고한승의 백일홍 이야기까지 재미있게 듣고 있다. 당시 음악대회에서 어린이의 눈길을 사로잡은 ‘유성기’에 대한 묘사도 재미있다. 이러한 내용을 보면, 당시의 아동예술 행사가 소년소녀 및 동화구연가의 합동 무대로 자연스럽게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이 글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한어린이’의 변화이다. “작난감이란 작난감”도 가진 것이 없고 “취균 구경이나 운동 구경”도 잘 하러가지 못할 때 ‘한어린이’는 왜 자신이 처음부터 “어른으로 생겨나지 못”했는지 답답해하며 골을 낸다. 그러나 『샛별』이 주최한 음악대회에 참석한 후 “나는 어른될 생각이 조금도 없었습니다” “만일 어른이 되었더라면 그 날 저녁에는 도로 어린애 되기를” 울며서 빌었을 뻔했다고 생각이 완전히 바뀐다. 바로 조선 어린이들이 조흔 악습으로 빨리 성숙할 것이 아니라, ‘어린이기’를 충분히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당시 어린이운동가들의 인식과 노력이 실제 그 시대 어린이의 삶으로 실천된 것이다.

무엇보다도 샛별사가 주최가 된 음악대회에서 무대에 오른 관현악단의 주인공들은 어린이들이다. 무대를 즐기는 관객들도 어린이들이다. 즉, 샛별사는 어린이들이 예술의 주체가 되고 관객이 되어 예술을 감상하고 즐길 수 있도록 어린이들을 예술 현장에 참여시켰다. 아동예술은 어린이 시기의 감성 해방을 끌어 주는 유로가 된다는 것을 이 ‘한어린이’의 관점에서 이해할 수 있다.

2) 샛별사의 아동 예술 행사와 방정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개성의 아동 잡지 『샛별』은 『어린이』와 일정한

유대 관계를 보였다. 『새별』과 『어린이』는 각각 주일학교와 천도교를 배경으로 성장한 점은 달랐지만, 조선 어린이를 위한 아동예술의 발전과 어린이날을 기념하지는 취지에서는 같은 노선 위에 있었다고 할 수 있다.

『새별』이 창간과 함께 ‘새별동무대회’를 연 것 역시 1923년 『어린이』가 창간될 때 동무대회를 연 것과 다소 닮아 있다. 『새별』이 이 같은 기획을 하고 적극적 활동을 시작한 시점은, <색동회>가 동경에서 창립된 후 7월 23일 조선에서 『어린이』와 함께 개최한 ‘전선소년지도자대회’ 이후와 이어진다. 즉, 개성 지역 어린이 운동과 색동회의 활동은 연관지어 살펴볼 여지가 충분하다.

『『새별』 창간을 기념하는 대성황의 새별동무회』를 보면,²⁵⁾ “오백여 명의 어린 남녀가 모혀 웃고 질겨하는 것은 때아닌 봄을 맞는 것갓따다 더라”라고 전한다. 이 동무회는 주로 동요 독창과 합창, 동화, 동화극이 한데 어우러진 종합 아동 예술 행사였던 것으로 나타난다.²⁶⁾ 1924년 6월에 이루어진 <가극강연성회> 때는 독창, 양금, 관현악 합주, 하모니카 연주와, 마해송, 고한승의 동화, 가극 <숨박국질>과 <물망초>가 이루어졌으며, 소년문제 강연, 소년회 조직도 함께 이루어졌다.²⁷⁾

25) 동아일보, 1923.11.6.

26) 이때의 주요 프로그램은 ‘소년 7인의 합창’, ‘공영선(소년)의 동요 독창’, ‘한석원의 이야기’, ‘구순복(소녀)의 독창’, ‘마해송의 이야기’, ‘홍창봉(소년)의 독창’ ‘희극’ 등이다.

27) “재경 소년소녀 잡지 『새별』사에서는 한포(汗浦) 시민의 초청을 받아 지난 십사일 가극반 소년소녀 십이 명이 한포에 이르러 다대한 환영 가운데 당일 밤 여덟시 반부터 당디 예배당에서 동화회(童話會) 겸 가극회(歌劇會)를 열었는데 남녀 학생의 독창(獨唱) 병창(並唱) 사현금(四絃琴) 양금(洋琴) 하모니카 관현악합주(管絃樂合奏) 등과 마해송 고한승 전수창 제씨의 재미있는 동화가 잇는 후에 『숨박질』 물망초(勿忘草)란 두 가지 가극(歌劇)이 잇서 매우 재미있게 지냈는데 청중은 남녀로소 오백여 명에 달하여 한포 초유의 성황을 이루었고 그 잇흔날 십오일 하오 한시부터 가튼 예배당에서 소년문제 강연회(少年問題講演會)를 개최하고 마해송씨와 고한승 씨의 열렬한 강연이 잇는 후 이어서 한포소년회(汗浦少年會)를 조직하게 되어 모힌 소년 전부가 회원이 되고 어른은 찬성회원

『셋별』 2권 3호(1924.3.)에 실려 있는 “춘기동화대회” 알림 란의 기록은 셋별사와 방정환의 직접적인 교류 사실을 뒷받침하고 있다. ‘방정환 고한승 마해송 세 분 선생님’이 어린이를 위해 이야기를 들려 줄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제2회 어린이날을 앞둔 시점에서 방정환의 개성 방문은 새로운 의미가 있다. 개성소년회가 어린이날을 기념하여 기행렬을 한 것, 『셋별』이 5월호를 ‘어린이날 기념호’로 발행한 것 등을 다시금 유심히 바라보게 한다.

방정환이 <천도교소년회>와 <색동회>를 조직하고, 어린이날을 제정하고 소년운동을 가열차게 일으킨 그 노력이 지역으로 전파되어 개성에서 또 하나의 봉우리로 결실을 맺게 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그리고 그 배경에는 <색동회> 구성하고 있던 개성 출신의 인물이 있었다는 점이다.

『셋별』에서 방정환이 동화대회를 가진 후 같은 해 8월에는 『어린이』가 후원이 되어 『셋별』의 경성 공연이 주선된다. 『셋별』은 경성에서 개성 이북의 수재 동포를 구조하기 위해 <개성소녀가극대회>를 열기도 했다.

『셋별』사 주최와 『어린이』사 후원으로 개성 이북의 수재 동포를 구조코자 하는 개성 소년소녀(少年少女)의 가극무용대회(歌劇舞踊大會)는 예명과갓치 데일회를 개최 이십일일 밤 여덟시 반부터 종로 청년회관에서 개최하였다. 당각에 고한승(高漢承) 씨의 스회가 잇슨 후 귀엽고 아름다운 소녀 일곱 명이 <와서 직히지요>라는 노리를 불너 첫막을 열기 시작하여 혹은 무용 혹은 동화극(童話劇) 혹 독창(獨唱) 가극(歌劇) 등을 순서대로 맞춰여 데일부(第1部)를 쫓 내고 잠시 휴계가 잇섯는 바 이 사이를 리용하여 기경 리관운(李觀運) 씨의 수해에 대한 보고와 소파(小

(贊成會員)이 되야 규측을 통과하고 간사 오명을 선거한 후 새사별사 일행은 동리 성혜자 씨 집에 열린 시민유지의 환영회에서 오찬을 맞치고 오후 세시 차로 돌아왔다고(개성)”

동아일보. 2024.6.17.

波) 방정환(方定煥) 씨로부터 불상한 그 동포를 위하여 오직 마음으로라도 동정의 눈물을 뿌리자는 간곡한 말이 있슨 후 다시 이리흔 ○○를 위한 윤심덕(尹心德) 양의 ○○독창이 끝나자 즉시 데이부(第2部)에 옮겨 역시 어린이들의 몸짓과 소리로부터 아로삭여 나오는 튼진한 예술에 만장은 도취되얏섯는대 폐회되기는 동일시 반경이 잇스며 이날 밤에 동정의 기부금이 약 백원에 달하얏섯고 다시 작일에는 경운동 턴도교당(天道教堂)에서 데이회를 기취할 터이며 오늘 아침 아홉시부터 수표교 예배당(水標橋禮拜堂)에서 다시 가극 무용대회를 열어 어린이들에게 공기한다더라.²⁸⁾

고한승의 사회로 진행된 이 가극대회는 “어린이들의 몸짓과 소리로부터 아로새겨 나오는 튼진한 예술에 만장은 도취”되었다고 쓰고 있다. 방정환은 연사로 등장하여 “불상한 그 동포를 위하여 오직 마음으로라도 동정의 눈물을 뿌리자”고 호소했다. 이후 가극대회는 종로청년회관, 천도교회관, 수표교예배당으로 옮겨 가며 경성 시내를 순회했다.

6. 나오며

이상으로 본 연구는 1920년대 초 개성 지역에서 발행된 아동 잡지 『셋별』에 대한 연구를 수행했다. 국립어린이청소년도서관 <윤석증문고> 소장본 『셋별』 3개호 즉, 2권 2호(1924.2), 2권 3호(1924.3), 2권 5호(1924.5) 3개호에 대한 1차 발굴 현황을 학계에 소개하고, 일차적으로는 서지적 고찰에 목적을 두고 『셋별』의 발행 사항과 편집 체제를 살폈다. 나아가 1920년대 초 우리나라 아동문학사에서 『셋별』지가 어떤 역할을 하였는지, 방정환과의 교육 관계 및 『어린이』와 영향 관계 등을 곁들여 짚어보았다.

28) 매일신보 1924년 8월 23일자. 「찬란한 셋별 郡, 개성소녀가극대회, 어린이의 튼진한 예술」

3개 호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기 때문에 이 잡지의 전체성을 규명하고 그 수록 작품의 구체적인 세부를 분석하지는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는 1923,4년 개성을 중심으로 전개된 어린이운동과 『새별』을 무대로 전개되었던 초창기 한국 아동문학과 아동예술의 새로운 일각을 조명해 보고자 했다.

먼저, 본 연구는 『새별』이 1923년 11월 창간호를 낸 후 1924년 10월호까지 약 1년간 10개호를 발행했을 것으로 추정했다. 편집 체제에서 나타나는 『새별』의 가장 큰 특징은 ‘문예 중심 편집’이었다는 점이다. 그리고 『새별』은 창간호부터 역사 인물 이야기 란을 두는 등 민족의식을 어린이들에게 심어주고자 했다. 이번 『새별』 잡지의 발굴이 새로운 시사점을 주는 것은, 『새별』과 『어린이』 편집의 유사성이다. 그 배경으로 본 연구는 진장섭·고한승·마해송 등 개성 출신 <색동회> 회원의 적극적 행보와 그 관련성에 대해 주목했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새별』에 수록된 아동문학 작품을 조명하고, 새별사가 이끈 아동예술의 의미를 살폈다.

『새별』은 1920년대 초 우리나라 아동문학의 작가와 작품 양 면에서 활발한 성장을 이끌었다. 현재까지 파악된 『새별』의 주요 작가는 ‘대화’에 우영희, ‘동요’와 ‘유년소설’에 금강생, ‘동화’에 고한승, 고한용, ‘소설’에 임영빈, ‘동화극’에 마해송 등이 대표적이다.

본 연구는 고한승의 동화 『바위의 슬픔』과 마해송의 아동극 『다시 건너서』 두 편을 확인하였으며, 이를 다시 그 후에 나온 두 사람의 동화집 『무지개』(1927)와 『해송동화집』(1934) 수록본과 비교하였다. 서지적 고찰을 통해 본 연구는 마해송의 아동극 『복남이와 네 동무』의 발표 시기를 ‘새별 1923년 12월호’가 아닌 ‘새별 1924년 1월호’로 바로 잡았다.

윤석중의 동요 『봄이 오니까』도 처음 발굴 소개했다. 『봄이 오니까』는 윤석중이 일본 동요 『봄이 왔다[春が来た]』에 대응하여 창작한 동요로 윤석중의 항일의식을 엿볼 수 있는 초기 작품이다.

끝으로 본 연구는 1920년대 초 우리나라 아동예술사의 면에서 기여한 『새별』의 특별한 노력을 주목했다. 『새별』은 잡지 창간과 함께 ‘새별동무대회’를 열기 시작하여, 각종 ‘동화회’, ‘음악대회’, ‘강연’, ‘가극’ 등 순회 공연을 이어나갔다. 『새별』은 잡지 발행을 매개로 우리나라 초창기 아동예술의 성장과 발전에 기여했다.

『새별』이 방정환과 교류한 것은 흥미로운 한 지점이다. 『새별』이 주최한 ‘춘기동화대회’에서 방정환은 고한승·마해송과 함께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주었으며, 『새별』이 수재 동포 구제를 위해서 경성에서 <개성소녀가극대회>를 공연할 때 『어린이』는 그 후원을 하였다. 이러한 움직임의 밑그림을 만들어 준 것은 바로 개성 출신 진장섭·고한승·마해송이 그 구성원이 된 <색동회>였다.

『새별』은 약 1년 간 운영된 단명한 아동 잡지이다. 그러나 개성 아동문학의 주요 무대가 되어 주었으며, 이후 1927년 고한승의 『무지개』, 1934년 마해송의 『해송동화집』이 출간되는 데 촉진제 역할을 했다. 특히, 개성 지역 어린이운동과 아동문학의 발전에 다대한 공로를 끼쳤다고 평가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문헌

『시대일보』, 『동아일보』, 『조선일보』, 『매일신보』, 『조선중앙일보』, 『어린이』, 『신소년』.

2. 논문 및 평론

김정의, 『한국소년운동사-1860~1945년-』, 민족문화사, 1992.

염희경, 『『해송동화집』의 이본과 누락된 『홍길동』의 의미』, 『동북아문화연구』 38호, 동북아시아문화학회, 2014, 179-195쪽.

원종찬, 『아동문학사의 잘못된 연표— 바위나리와 아기별 의 서지사향을 중심으로』, 『아동청소년문학연구』 2호, 한국아동청소년문학학회, 2008, 119-142쪽.

이재철, 『한국현대아동문학사』, 일지사, 1978.

유임하, 『여광』, 『한국근대문학해제집 4』(국립중앙도서관)

장정희, 『방정환 문학 연구』, 고려대학교 박사논문, 2013.

정인섭, 『색동회 어린이운동사』, 색동회, 1975.

<Abstract>

A Study on the “New Star(Saebiyul)” of the Gaesong Children’s Magazine in the early 1920s

Jang, Jeung-Hee* · Seo, Hee-Kyoung**

The paper is a study of a children’s magazine, “New Star”(Saebiyul, 셋별), published in the Kaesong area in the early 1920s. Three collections of the National Children’s and Youth Library, Yunseok Jungmun High School, are excavated and reported to the academic community.

“New Star”(Saebiyul, 셋별) is a children’s magazine organized around a Sunday school in Gaeseong. “New Star”(Saebiyul, 셋별) was founded on November 1, 1923. And it published 10~12 volumes for about a year until October November 1924.

The “New Star”(Saebiyul, 셋별) contains about half of the children’s literature in the magazine. The first issue of the book was titled ‘History Story’ The book was intended to convey a sense of history to children. In addition, “New Star”(Saebiyul, 셋별) has many aspects similar to “Eorini”(Children, 어린이) such as covers, readers’ pages, discourse rooms, quizzes and celebrating Children’s Day.

The “New Star”(Saebiyul, 셋별) led to a brisk growth in the early 1920s in terms of the amount of writing and works of children’s

* Poster-Doctor, Department of Korean Literature, Seoul National University.

** Ph.D. completion, Department of Creative Writing, Soongsil University.

literature in Korea. The “New Star(Saebiyul)” contributed to the development of children’s literature and children’s art in the Gaesong area. “New Star”(Saebiyul, 셋별) interacted with Gyeongseong “Eorini”(Children, 어린이) magazine and Bang, Jung-Hwan, and played a pioneering role in the children’s movement and juvenile society in the Gaesong area.

Key Words : Gaesung, Saebiyul, Saekdong-Hoi, GoHanSeung,
MaHaeSong, BangJungHwan

■ 논문접수 : 2020년 3월 25일

■ 심사완료 : 2020년 4월 12일

■ 게재확정 : 2020년 4월 17일

